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의 에너지 부문 협력

Rovshan Ibrahimov Hankuk University for Foreign Studies, Associate Professor

주요내용

- ▶ 아제르바이잔은 주요 유전과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내 주요 에너지 생산국인 반면, 터키는 석유의 89%와 천연가스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국임.
- ▶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부문 개발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음.
- ▶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주요 운송 허브로 부상함에 동시에 에너지 공급원의 다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남유럽의 신시장에 진출하며 국영기업인 SOCAR은 흑해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이슈 현황

▶ 아제르바이잔은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에너지 생산국인 반면 터키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임.

□ 아제르바이잔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을 통과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반해, 터키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지리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
- 이에, 양국은 자신들의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에너지 부문을 활용하고자 하며, 에너지 부문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주요 유전 및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의 대표 유전에는 아제리-쉬라그-구나쉬리(약 1조 톤의 석유) 해상 유전과 샤테니즈 오프쇼어가스전(약 1.2조m³)이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유럽의 에너지 확보에 있어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대안이 됨.
-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유럽 국가들에 있어 대체 에너지 공급원이자 에너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함을 의미함.

-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수출 경로는 주로 본토 또는 조지아 및 터키를 통과하는 것임.
-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지경학적 외교 정책 목표는 글로벌 시장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안전한 수출 운송로 확보이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수출운송경로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자국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SOCAR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것임.

□ 한편, 터키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원의 다각화를 희망하고 있음.

- 현재 터키는 자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89%와 천연가스의 99%를 수입하고 있음.
- 터키는 향후 발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 문제를 대비해 공급원을 다각화하고자 하며, 지역 간 에너지 운송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터키의 에너지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는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운송로 확보 및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임.
- 터키는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지리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
- 따라서, 터키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아제르바이잔은 중요한 에너지 자원 보유국이라 할 수 있음.

□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에너지 부문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음.

- 이미 'BTC(바쿠-트빌리시-세이한) 파이프라인(가스관)'과 'BTE(바쿠-트빌리시-에르주룸) 파이프라인(가스관)' 등 에너지 수출 운송로가 성공적으로 건설됨.
- 또한, 양국은 '트랜스 아나톨리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TANAP)' 건설에 협력하고 있음.

그림 1. 에너지 운송 및 허브국가인 터키



자료원 : 터키외무부

주 : 빨간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빨간 점선- 계획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초록선- 석유 파이프라인

❖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공급 덕분에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었음.

- 터키는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천연가스의 각각 60%와 16%를 수입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50%를 전력생산에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터키는 에너지 자원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아제르바이잔은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유럽의 중요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터키는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음.
-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 공급가격은 러시아와 이란보다 저렴함.
-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터키 천연가스 수요의 12.7%를 공급하고 있음(약 66억 m^3).
- 양국은 TANAP(터키와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을 시행할 예정이고 시행 후 터키 시장에 60억 m^3 의 가스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임.
- 또한 남유럽국가(그리스, 이탈리아, 불가리아)에 100억 m^3 의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트랜스 아드리아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임.
- 이로 인해 향후 천연가스 공급은 250억 m^3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부 발칸 국가들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됨.
- 아제르바이잔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SOCAR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터키의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SOCAR는 현재 터키 시장에서 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스타정유소(Star Refinery)’를 통해 정유 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 SOCAR는 터키에 석유화학단지인 PETKIM를 건설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완공될 예정임.
- 또한, SOCAR는 ‘PETLIM 항구’를 완공했으며 이를 통해 스타정유소와 PETKIM이 생산하는 정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됨.

2. 전망과 시사점

❖ 에너지 부문 협력을 통해, 터키는 지정학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지경학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주요 운송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터키는 자국의 에너지 공급원의 다각화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의 협력을 통해 남부 유럽의 신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됨.
 - 또한, 국영 에너지 기업인 SOCAR이 흑해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TANAP의 시행 후 터키는 유럽 국가들에 수출되는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의 주요 시장이자 운송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
 - TANAP의 가스 수용능력이 확대되면, 이스라엘,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해당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바쿠-트빌리시-세이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석유 운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매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운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공급뿐만 아니라 운송 국가의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SOCAR는 흑해와 서부 발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해당 지역에서 SOCAR의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흑해 및 남동부 지역에서의 SOCAR의 사업 활동은 다음과 같음.

표 1. 흑해 및 남동부 지역의 SOCAR 사업현황

흑해 지역의 SOCAR 활동	내용
조지아	-석유 및 천연가스 주요 공급 업체 -천연가스 분배 시스템 제어 -흑해에 있는 콜레비 석유 터미널 소유회사 -114 개의 주유소 (105 개의 주유소 (CNG와 휘발유를 가진 20 개 주유소 포함), 8 개의 CNG와 1 개의 LPG)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증가할 전망 -국가 내 최대 납세자 -조지아 내 최대 투자자
터키	-천연가스의 약 13% 수출 -TANAP의 58% 지분 보유 -페트킴의 대주주 -스타 정유소의 소유주 -페트림의 대주주 -터키 내 최대 투자자
우크라이나	-59개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증가할 전망 -수출업체
루마니아	-35개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증가할 전망
불가리아	-2018년부터 10억m ³ 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 -치렌 가스 저장 시설 확장 관련 투자에 관심

EMERiCs

참고문헌

- Turkey's Energy Profile and Strategy, <http://www.mfa.gov.tr/turkeys-energy-strategy.en.mfa>
- SOCAR Energy Georgia, <http://www.socar.ge/>
- SOCAR to launch 6-8 filling stations in 2017, <https://report.az/en/energy/socar-to-launch-6-8-filling-stations-in-ukraine-this-year/>
- SOCAR Romania Energy, <https://www.socar.ro/en>
- Azerbaijan's SOCAR interested in Bulgarian Gas Storage Expansion, <http://af.reuters.com/article/idAFL8N1C61XN>
- Rovshan Ibrahimov,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 Sector in Azerbaijan: The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Caucasus International, Volume 6, No: 1, Summer 2016, <http://cijournal.az/post/the-development-of-the-transport-sector-in-azerbaijan-the-implementation-and-challenges-rovshan-ibrahimov>
- Rovshan Ibrahimov, Restoration of Historical Silk Road: The Role of Azerbaijan in Formation of Alternative Transport Route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Far Eastern States, Materials of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How to Establish Silk-Road Studies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of Research, Volume 2, 21-24.08.2015, Gyengju, Korea, 111-128.
- Rovshan Ibrahimov, Turkish-Azerbaijani Energy Relations: Significant Leverag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Policy Interests of Both Countries, Insight Turkey, Volume 17, No 2, 2015, 83-100.
- Rovshan Ibrahimov, Turkish-Azerbaijani Energy Relations: Basis For Prag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ttp://www.naturalgaseurope.com/turkish-azerbaijani-energy-relations-25168>.
-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www.mfa.gov.tr/turkeys-energy-strategy.en.mfa>.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